

기독교의 ‘완전(perfection)’ 개념과 기독교윤리

유경동

◆ 목 차 ◆

1. 서론
2. 사도적 교부들의 완전
3. 어거스틴(Augustine)의 완전
4.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완전
5. 월터 힐튼(Walter Hilton)의 완전
6. 테레사(St. Teresa of Avila)의 완전
7.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완전
8. 결론

1. 서론

완전주의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본성 발달과 관련하여 인간의 선(善)에 대한 도덕적 가능성과 연관된 도덕 이론과 결부되어 정의되어 왔으며,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 이후 많은 사상가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완전주의자들은 선(善)의 객관성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윤리학 또는 정치학을 발전시켜왔다. 완전주의에 대한 논의는 어떠한 기준과 목적으로 인간의 선에 대하여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완전주의자들은 인간에게 선이란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나 행동에 상호 영향성을 미치는 관계성이 그 자체로 선하다는 점에서 선의 객관성을

정의하며, 기능적 또는 공리적 관점에서의 선을 거부한다.

도덕 이론으로서 완전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선한 삶을 객관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완전제에 관한 이중적인 관점이 형성되는데 그것은 각각 자기중심적 형식과 비 자기 중심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¹⁾ 자기중심적 완전주의는 한 인간 존재가 가능한 스스로 완전제에 나아가도록 도덕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는 이기적 완전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타자의 선(善)은 자기 자신의 선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완전성과 타자의 완전성은 절대로 충돌할 수 없다. 반대로 비 자기중심적 완전주의는 자신의 선과 타자의 선의 충돌을 용인한다. 비 자기중심적 완전주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근본적이며 비 파생적인(non-derivative) 의무를 가지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할 뿐 아니라 타자도 완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리적으로, 이러한 관점은 모든 인류가 타자의 완전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요구한다. 이 두 가지 형식을 모두 포함하여, 완전주의는 모든 인류가 자기 자신의 도덕적 완전뿐만 아니라 타자의 도덕적 완전을 위해 애쓰도록 지시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전통적 완전주의 개념에 비하여 기독교 완전주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면서 동시에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완성하여 나간다는 입장에서 자기중심적 완전주의나 비 자기중심적 완전주의와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인간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인적 형상을 회복하는 기독교 완전주의는 기독교윤리학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의 완전주의는 전통적인 윤리학의 범주인 자유주의나 의무론을 넘어서며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Steven Wall, "Perfectionism in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12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2/entries/perfectionism-moral/>>.

필자가 이 글에서 전개하려는 논지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기독교 전통에서 완전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초대교부와 어거스틴, 아퀴나스에 이어 웨슬리까지 완전에 관한 신학적 그리고 영성 개념들을 정리하여 그 핵심내용을 기술하여 보겠다. 그리고 둘째, 기독교의 완전개념이 기독교윤리학에 공헌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사도적 교부들의 완전

사도적 교부들이란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중반의 기독교 저작자들을 말하며, 교회 전통에서는 이들의 저작을 정통 사도들의 설교에 버금가는 중요한 문서로 인정한다. 특히 존 웨슬리의 완전 교리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이들의 저작이 큰 역할을 했는데,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옥의 이그나시우스, 서머나의 폴리캅의 글, 헤르마스의 목자(the Shepherd of Hermas), 바나바 서신, 디다케(the Didache) 등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²⁾

로마의 클레멘트(A.D.E. 30-100)는 그의 고린도 서신에서 완전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이는 친절과 공정함, 겸손과 교회 질서에 있어서 신의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에 대한 믿음과 타자에 대한 친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랑과 연결된다. 기독교인의 완전은 전적으로 신의 사랑, 즉 구원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기독교인의 완전은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사랑을 전하는 행위자로 연결된다.³⁾ 이와 같이 클레멘트는 기독교인의 완

2) 이하 완전에 대한 개념은 바운즈(Bounds)의 글을 참고하였다. Christopher Todd Bounds,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in the Apostolic Father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42, No.2 Fall, 2007, 9-27 참고.

전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신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타자에 대한 순전한 사랑을 연관시킨다.

안디옥의 이그나시우스(A.D.E. 30-107)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정리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는 믿음을 통해, 인간이 죄와 타자에 대한 미움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본다.⁴⁾ 클레멘트가 신의 사랑과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이그나시우스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즉, 그리스도인이 전적인 사랑과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완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믿음이란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의미하며, 사랑은 미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그나시우스의 완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약자에 대한 도움과 타자에 대한 분노나 미움으로부터의 해방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⁵⁾

사도시대 직후에 쓰여진 디다케(Didache)에서 완전 교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디다케 문서 전체를 통틀어 완전은 각 자료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디다케는 완전 교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네 번 언급하는데, 먼저 완전은 구원에 이르는 길의 최종 목적지로 설명된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곧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죄의 길을 피하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태도와 행위를 지칭한다.⁶⁾ 디다케는 그리

3) Clement of Rome, *The First Epistle of Clement to the Corinthians*, 49.6, 50.1-3. Christopher Todd Bounds,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in the Apostolic Father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42, No.2 Fall, 2007, 9 참고.

4) Ignatius of Antioch, *The Epistle of St. Ignatius to the Ephesians* 14.2. Christopher Todd Bounds,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in the Apostolic Father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42, No.2 Fall, 2007, 12 참고.

5) Christopher Todd Bounds,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in the Apostolic Father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42, No.2 Fall, 2007, 14.

6) 디다케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언급은 1.;6.2;10.5;16.2에 나온다. Christopher Todd Bounds,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in the

스도인의 완전을 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구체적 행위와 태도, 반대로 죄로부터 벗어나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디다케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⁷⁾

한편 바나바 서신(The Gospel of Barnabas)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구약 성서의 성전 개념과 관련된다. 이 문서에서 개별적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곧 성전으로 인식되며, 신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죄를 피하며, 신에 대한 경외를 통해 성도의 삶에 주님이 거하실 완전한 성전을 세우고 성령을 위한 영적 공간을 세우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할 수 있다.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캡(Polycarp)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하여 한 번 언급한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또한 왕들과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고 싫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십자가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열매가 모두에게 밝히 드러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완전하게 되리라.”⁹⁾ 이 명령문은 원수나 친구 모두를 사랑하라는 폴리캡의 권유와 연관된다. 폴리캡은 내적인 사랑의 의도와 외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 모든 계명과 공의의 기초가 세워진다고 본다. 폴리캡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통해 나타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사랑의 행위가 드

Apostolic Father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42, No.2 Fall, 2007, 15 참고.

- 7) Christopher Todd Bounds,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in the Apostolic Father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42, No.2 Fall, 2007, 16.
- 8) *The Epistle of Barnabas* 1.5, 4.11, 6.8-19, 14.4-8, Christopher Todd Bounds,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in the Apostolic Father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42, No.2 Fall, 2007, 17 참고.
- 9) *The Epistle of Polycarp to the Philippians*, 12.3. Christopher Todd Bounds,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in the Apostolic Father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42, No.2 Fall, 2007, 19에서 재인용하여 번역함.

러날 때에 그리스도인이 완전해 진다고 본다.¹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초대교부들에게 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랑과 연관이 되어있으며 삶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전적인 헌신이 요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이웃을 위한 행위가 이원론적으로 나뉘지 않으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에 이르기 위한 삶이 전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어거스틴(Augustine)의 완전

어거스틴의 완전론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그의 이해를 통해 드러난다. 그의 『하나님의 도성』에 나타나는 역사 이해란, 근대적 이성 중심의 역사 이해가 아니라, 구원론적 맥락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역사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며 처음부터 그 끝이 정해져 있지만, 인간의 이성적 인식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위한 섭리와 내용, 그리고 방향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는 오직 신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어거스틴은 보편적으로 인간은 모두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신은 은총을 베풀어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 중 일부를 하나님의 도성의 일부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인간의 도성에 남겨둔다. 어거스틴의 결정론적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은 신의 은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신을 향해 사는 사람을 의미하며, 인간의 도성의 시민은 반대로 신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삶을 산다.

어거스틴은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도성의 시

10) Christopher Todd Bounds,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in the Apostolic Father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42, No.2 Fall, 2007, 19.

민인지, 인간의 도성의 시민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각 도성의 시민은 섞여 살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비록 신의 도성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보여지는 역사는 단지 인간의 인식 이면에 있는 도덕적 드라마의 흔적일 뿐이며, 분명한 것은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의 구분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점이다.¹¹⁾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완전한 자유의지와 영원한 기쁨, 그리고 과거의 죄와 별도로 해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만 있게 된다.¹²⁾ 이러한 측면에서 어거스틴의 완전론은 인간의 개별적인 영성, 도덕적 차원의 문제이기 보다는, 구원론적 역사관 및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완전을 향한 인간의 노력의 중요성 보다는 결정론적 차원 및 종말론적 차원에서의 완전에 수동적으로 머무는 경향이 있다.

어거스틴의 완전론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과의 분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이 되어있다. 따라서 완전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기독교 초기 교부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완전과 헌신적 삶의 내용은 어거스틴에게 내면화 되어 믿음의 영역에서 내면화되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사안은 역사의 지평을 넘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11) Michael Mendelson, "Saint Augustine",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12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2/entries/augustine/>>.

12) 어거스틴, 『하나님의 도성』(조호연, 김종흡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1131.

4.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완전

아퀴나스(1224-1274)의 완전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근거로, 인간이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능력들 중에서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덕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덕이란 그 행위자가 선한 행동을 하고자하는 습관적 능력으로서 발달된다. 인간의 행위란 인간의 의지와 이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인간의 덕 또한 인간 이성이나 의지의 법에 따른다. 덕은 단순히 자연의 모든 능력 또는 힘과 그러한 힘의 활동 사이의 중간상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덕은 어떠한 힘이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를 연결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 즉 절제하는 덕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적정한 양만 먹지, 탐욕으로 인해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어 굶어죽지 않는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덕론을 펼치면서 두 가지 행복에 대하여 설정한다. 먼저 비례적(propportionate) 행복은 인간의 본성에 비례적으로 획득하는 행복을 의미하며, 이는 인간이 본성에 의해 자신의 힘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다른 행복은 신의 초자연적 도움 없이는 얻을 수 없는 행복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룩할 수 없고 오로지 저 세상에서만 가능하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현생에서 철학자들이 신에 대하여 사색할 수 있는 것은 신 자신의 노력과 존재의 원인으로서 신을 반영하는 방식들을 통해 신을 아는 것으로 구성되는 반면, 이생에서의 축복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인 신성 자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된다.¹³⁾ 신과의 연합은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세의 축복이 신의 능력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완전히 인간의 본성과 동떨

13)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I-I(2nd Part of 2nd Part), Question 167. III(3rd part), Question 83.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Somma theologica)』 영문번역본은 Christian Classis Ethereal Library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URL=<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pdf>

어진 것은 아니다. 신의 초자연적 능력은 인간의 지적 능력 또는 의지적 능력을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을 두 범주로 구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두 가지 목적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완전 개념은 이러한 이차적인 초자연적 행복과 연관된다.¹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두 범주의 행복을 구분함으로써 아퀴나스는 자연적 덕과 신학적 덕을 구분한다. 자연적 덕이란 인간의 본성에 따라 비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연관된다. 신학적 덕은 인간 본성에 비례적인 축복이 아니라, 신과 함께 함으로써 경험되는 초자연적 선을 의미한다.¹⁵⁾ 자연적 덕은 도덕적 덕과 지적 덕으로 구분되며, 지적 인 덕은 진리에 얼마나 다가가느냐에 따라 그 완성이 결정되며, 도덕적 덕은 습관으로서 인간의 이성적 욕구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의 욕구에 관한 다양한 인간의 능력을 완전하게 하며,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한다.¹⁶⁾

자연적 덕 중 가장 기본적인 덕(cardinal virtues)은 사려분별(Prudence), 정의(justice), 용기(Courage) 그리고 절제(Temperance)이다.¹⁷⁾ 사려분별은 선한 질서 안에서 인간행위를 위한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적 인 덕이다. 절제는 성적 욕구와 같은 것을 억제하는 덕과 연관되며, 용기는 어떤 일을 수행하여 이루려는 욕구와 연관되는데 이 네 욕구의 조절을 통하여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절제하도록 한다. 한편, 정의는 이성적 욕구 또는 의지와 연관되는 덕이다. 이 네 가지 덕이 기본 덕목인 것은 각

14) Ralph McInerney and John O'Callaghan, "Saint Thomas Aquina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ummer 2014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sum2014/entries/aquinas/>>.

15)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I-I(1st Part of 1st Part), Question 62. 이하,

16) 위의 책, I-I(1st Part of 2nd Part), Question 55.

17) 위의 책, I-I(1st Part of 1st Part), Question 61.

각 그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 기본 덕목 아래에 다양한 자연적 덕의 범주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절제와 용기는 각 개인 자체를 향하여 각자의 선을 완전하게 하도록 하며, 정의는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 타자의 선을 완전하도록 한다.

신학적 덕에는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다. 각각은 영원한 축복과 연관되며, 신의 은총의 선물로서 주어진다. 신학적 덕은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이차적인 초자연적 행복은 인간의 일차적 자연적 행복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 덕의 완전을 능가하는 류(類)의 행복이다. 따라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적 덕의 주입과 더불어 자연적 덕은 신학적 덕과 더불어 유입된다고 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아퀴나스는 주입된 자연적 덕(*infused natural virtues*)와 획득된 자연적 덕(*acquired natural virtues*)을 구분한다.¹⁸⁾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퀴나스는 영원법 아래 자연법적 질서를 통하여 인간의 덕론을 통한 완전을 추구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신학적 덕목을 통하여 완전을 추구하지만 자연적 덕을 통한 성품의 훈련을 간과하지 아니하였다. 자연적 덕과 신학적 덕의 조화를 통하여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원론적으로 봄으로서 완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을 전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월터 힐튼(Walter Hilton)의 완전

월터 힐튼(1340/45-1396)의 『완전함의 척도(The Scale (or Ladder) of Perfection)』는 영어로 쓰여진 최초의 신비주의 문헌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인간의 영혼이 죄로부터 완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묘사한다. 힐

18) 위의 책, I-I(1st Part of 2nd Part), Question 55.

튼은 모든 인류가 그들의 죄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욕적 생활과 확고한 믿음, 그리고 신적인 명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영혼의 개혁이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월터 힐튼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행하는 죄들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그의 성찰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비도덕적인 삶을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궁극적으로 영혼의 최종목표인 완전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명상함으로써 영적인 평화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¹⁹⁾

인간이 완전케 되기 위하여서 해야 할 덕목은 겸손과 자선, 그리고 다른 영적 덕들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몸과 더불어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하며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비록 육적인 울타리를 벗어나 영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길이 완전케 이르는 것이다.²⁰⁾

힐튼은 명상을 세 단계로 분류한다. 첫 번째 명상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성과 담론을 통해 영적인 것을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두 번째 명상은 지혜와 이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명상이며, 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감각과 생각을 집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상은 ‘완전한 명상’으로서, 지식과 사랑 모두를 포함한다. 완전한 명상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 밝혀지며, 진리 자체를 이해하고, 영적인 것들, 즉 하나님에 대한 부드럽고 달콤하며 불타는 사랑을 이해함으로써,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황홀경에

19) Emmalon Davis, “Summary of Walter Hilton's *Scale (or Ladder) of Perfection*,”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ccel/hilton/ladder.html>

20) Walter Hilton, *The Scale (or Ladder) of Perfection*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36. URL=<http://www.ccel.org/ccel/hilton/ladder.html>

빠지게 되고, 이 완전한 명상 동안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삼위일체의 모든 형상과 합치된다.”²¹⁾

그런데 이러한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은 철저히 수동적이다. 윌터 힐튼은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한다. 인간은 육체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무리 절제와 연단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함에 이를 수 없으며 오로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만 가능하게 된다.²²⁾ 이러한 영적 완성은 단순한 도덕적인 변화를 통한 덕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덕이 사랑으로 변화는 것을 전제한다.²³⁾ 도덕적인 덕을 통하여 추구하는 완전의 한계는 인간의 능동적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은 인간의 육체적 삶과의 분리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비록 완전함에 다다를 수 없지만 완전을 향한 길을 추구하며 완전에 다다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²⁴⁾

물론 힐튼에게 있어서 인간이 능동적으로 덕을 행하는 것이 완전을 이루는 일에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선과 같은 사랑의 덕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처와 연관된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는 구절이 나온다. 힐튼은 이러한 거처에 거할 수 있는 존재를 완전한 영혼으로 본다. 그는 완전한 영혼이란 “이 세상에서 자선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명상함으로써 가장 달콤하고 사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한다.²⁵⁾ 따라서 사랑의 덕을 행하는 것은 영혼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데에 중요한 실천 사항이 된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덕이란 완전한 겸손의 덕과 연관된다. 따라서 완전히 겸손할 수 있다면 이는 완전한 사랑을 가지는 것이 되

21) 위의 책, 43.

22) 위의 책, 44.

23) 위의 책, 50.

24) 위의 책, 52.

25) 위의 책, 80.

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²⁶⁾

힐튼은 특별히 겸손과 사랑의 덕을 강조하며, 이를 완전히 이루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명상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본다. 겸손과 사랑의 덕의 완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임을 의미한다.²⁷⁾ 영혼의 완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힐튼은 믿음의 개혁을 강조한다. 믿음의 개혁이란 곧 신앙의 개종, 즉 다른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믿음의 개혁이 이루어지면, 다음으로는 감정의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는 이러한 감정의 개혁은 믿음의 개혁에 비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강조한다. 마치 질병으로 인해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건강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거나 힘을 쓸 수 없듯이, 죄로 인해 죽게 된 영혼이 회개와 예배를 통해 영적인 죽음을 면하게 되더라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이러한 영적인 치료는 곧 믿음의 개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영의 상태를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으로 인해 약해진 몸 상태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듯이, 믿음의 개혁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 자체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믿음의 개혁을 통하여 인간은 오랜 수행과 영혼의 끝없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²⁸⁾

완전에 이르는 과정은 세상적인 과정과 이분법적으로 분리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한 기독교신자는 세상을 등지자마자, 그 자신이 거룩하며, 복음과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이행하고, 육체의 죄로부터 나오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한다는 상상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가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완전 안에서 이해의 은총을 받게 되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

26) 위의 책, 106.

27) 위의 책, 132.

28) 위의 책, 163.

기 위해 노력한다.²⁹⁾ 영혼의 완전과 하나님과의 합일은 철저하게 성령의 은총이다. “인간의 욕망이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불을 통해 새롭게 되면, 이는 성령의 지식과 사랑의 완성이라는 은혜로운 빛을 받게 된다.”³⁰⁾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힐튼의 완전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명상의 최종 목적은 영혼이 완전하게 예수님에 대한 영적으로 불타는 사랑에 이르는 것이다. 완전은 모든 감각적이거나 이성적인 인식 또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주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³¹⁾ 그리고 완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미치는 하나님의 은총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결국 예수님 자신이며, 인간은 영적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인격도 변화되며 모든 덕이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의하여 통제되고 완전한 사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³²⁾

6. 테레사(St. Teresa of Avila)의 완전

테레사(1515-1582)가 기록한 『완전의 길(Way of Perfection)』은 카멜 수도원의 수녀들에게 바치는 책으로서 기도와 침묵,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합일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녀는 이 길을 일종의 규칙으로 설명하는데 특별히 자기 완전(self-perfection)을 추구하는 것으로 실천적이며 자기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³³⁾

29) 위의 책, 184.

30) 위의 책, 185.

31) 위의 책, 194.

32) 위의 책, 210.

33) Kathleen O'Bannon, “Summary of St. Teresa of Avila's *The Way of Perfection*,”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ccel/teresa/way.html>

테레사는 신앙의 관점에서 완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³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완전을 인식하지 못하며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³⁵⁾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완전을 이르는 길은 비록 인간에게 한계가 있지만 완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상 어디에서든 가장 위대한 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 나는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나는 비록 비참한 피조물이지만, 주님의 위엄 앞에 이를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로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며 주님의 교회의 선함이기 때문입니다.”³⁶⁾

테레사에게 완전이란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일을 의미하며 따라서 감각적 정욕과 의지적 욕망을 벗어난 완전한 평화상태라고 본다. 따라서 그녀는 완전의 상태가 지속되기 위하여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³⁷⁾ 특히 완전을 이르기 위한 덕의 윤리로 그녀는 ‘선한 양심’을 강조하며 그 어떤 작은 죄에 대해서도 자유롭기 위하여서는 가장 완전하면서도 가능한 완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⁸⁾

기독교인이 선한 사랑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 전제조건은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삶이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며,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과 관계하지 않는데, 이는 즐거움이 종교적 삶의 모든 실천들과 연관이

34)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한 기독교인들의] 도시나 성의 대장이 되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설교자와 신학자들은 주님의 길을 걷는 데에 매우 능숙해야만 합니다. 이것들이 종교적인 한, 우리는 이들이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들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St. Teresa of Avila, *The Way of Perfection*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25. URL=<http://www.ccel.org/ccel>

35) St. Teresa of Avila, *The Way of Perfection*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26.

36) 위의 책, 27.

37) 위의 책, 32.

38) 위의 책, 36.

되기 때문이다.³⁹⁾ 그리고 테레사는 완전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핵심은 곧 기도이며, 특히 관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합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⁴⁰⁾ 이렇게 보면, 테레사에게 있어서 관상 기도를 통한 완전, 곧 하나님과의 합일은 인간의 모든 종류의 의식적 작용이 멈춘 상태에서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합일을 통하여 결국 의지를 포기하고 타자를 용서하는 실천에 다다르게 된다.⁴¹⁾

테레사는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완전과 정반대의 것이며, 세상에 얼마나 애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본다. 이미 완전에 이르는 사람들, 또는 완전에 이르는 길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마치 발아래에 세상을 짓밟는 것과 같기 때문이며 이를 주님은 기뻐하신다.⁴²⁾

하나님과의 신비주의적인 합일은 일종의 환상이나 허상이라고 비판받는데 대하여 테레사는 하나님과의 합일은 성령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의 범위를 넘어가며, 그러한 관점에서 절대 허상이 아니라 실재임을 강조한다. “완전을 얻은 사람은 절대 주님께 심판과 유희, 박해와 갈등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또한 주님의 위대하심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관상은 주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며, 절대 환상이 아니라고 확신한다.”⁴³⁾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가장 높은 수준의 완전은 “가장 위대하며 가능한 완전”이라고 표현한다.⁴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테레사에게 완전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합일이며 그 어떠한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주님과 신비로운 합일은 선한 양심과

39) 위의 책, 61.

40) 위의 책, 143.

41) 위의 책, 144.

42) 위의 책, 146.

43) 위의 책, 147.

44) 위의 책, 153.

관상기도,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양도함으로서 주어지는 은혜이다. 이 완전에 거하는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직접 몸과 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7.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완전

존 웨슬리(1703-1791)의 『기독교인의 완전에 관한 평이한 해설(A Plain Account for Christian Perfection)』은 기독교인의 완전에 관한 자신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관하여 설명한 저서이다. 이 책에서 웨슬리는 완전이란 행위에 있어서 의도의 순결함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는 것으로 정의한다. 특히 이 책은 연도에 따라 그가 어떻게 완전의 교리를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며, 특히 마태복음 22장 36-40절에 나타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중심으로 믿음의 완전을 설명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웨슬리의 완전 교리의 핵심은 곧 완전한 사랑이며, 이는 오직 은총에 의한 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⁴⁵⁾

존 웨슬리는 기독교인의 완전의 교리의 출발은 인간이 예수 그 자체로서의 진리를 알려고 하는 진지한 열망의 일부분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는 테일러 주교(Bishop Taylor)의 『거룩한 삶과 죽음의 규칙과 실천방안(Rule and Exercises of Holy Living and Dying)』에서 제시하는 의도의 순수성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의도의 순수성은 곧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심과 결부된다. 그리고 1726년 웨슬리는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의 『기독교인의 유형(Christian's Pattern)』을 읽고, 내적 종교의 본질과 범위에 대해서 공부하

45) Abby Zwart, “Summary of John Wesley's *A Plain Account for Christian Perfection*,”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ccel/wesley/perfection.html>

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웨슬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때, 그 마음을 통한 헌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웨슬리는 완전이란 의도의 단순성과 사랑의 순수성으로서 이는 마치 영혼의 날개와 같아서 이것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⁴⁶⁾

웨슬리는 특히 기독교인의 완전이란 어중간한 중립지대가 없음을 강조한다. 이는 특히 윌리엄 로(William Law)의 『기독교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과 『진지한 소명(Serious Call)』을 통해 확신한 것으로서, 그는 반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오로지 주님의 은총을 통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자신의 모든 영혼과 몸과 실존을 드리기로 마음먹었음을 고백하고 있다.⁴⁷⁾

웨슬리는 기독교인에게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은 곧 하나님의 완전으로 결부된다고 본다. 웨슬리가 1733년 성 매리 교회(St. Mary Church) 앞에서 설교한 “마음의 할례(the Circumcision of the Heart)”에서 그는 거룩함은 기독교인의 영적 특징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씻김을 받아 하나님이 부여하신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⁸⁾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웨슬리는 완전을 사랑과 연결하여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며, 모든 계명의 최종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곧 사랑은 처음이자 가장 위대한 계명인 동시에 모든 계명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 안에 완전이 있으며,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웨슬리는 주장하는 것이다.⁴⁹⁾

웨슬리는 사랑의 완전을 두 가지 관점에서 강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의 완전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있으며, 이것은 곧 완전한 선이자 궁극적인

46) John Wesley,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Section 1-3, 3. URL=<http://www.ccel.org/ccel>

47) 위의 책, Section 4, 3.

48) 위의 책, Section 6, 4.

49) 위의 책, Section 6, 4.

목적이다. 결국 사랑으로서 완전은 율법의 완성이며 우리의 영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⁵⁰⁾ 웨슬리는 “감리교인의 특징(the Character of a Methodist)”이라는 글을 통해 완전한 기독교인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신6:5, 막.12:30).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이며, 진정한 소망은 곧 하나님이다. 즉 완전한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며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⁵¹⁾

완전한 사랑의 두 번째 대상은 이웃이다. 웨슬리는 완전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랑은 마음의 순결함을 통하여 질투와 분노, 좋지 못한 성품이 변화되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⁵²⁾

그러나 완전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한다. 완전한 기독교인은 지식에 있어서 완전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무지와 실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지적인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다. 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은총으로부터 출발한다.⁵³⁾ 완전의 본질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어떠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이 세상에서 무지와 실수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다. 완전은 구원의 본질에 포함되는 것인데, 무지와 실수와 같은 인식론적인 문제는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의 근본적인 불완전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이러한 보상과 지식의 완전을 추구하는 것

50) 위의 책, Section 6, 4.

51) 위의 책, Section 10, 7.

52) 위의 책, Section 10, 8.

53) 위의 책, Section 12, 10.

은 잘못된 생각임을 웨슬리는 강조한다.⁵⁴⁾

기독교인의 완전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하여 웨슬리는 모든 것을 성서와 은총의 빛을 통해 보고, 이를 한 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기독교인의 완전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독교인에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성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걷고 있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기독교인의 완전은 그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 그 마음과 생명을 바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⁵⁵⁾ 따라서 기독교인의 완전은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통해 절대 타락할 수 없는 궁극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증언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⁶⁾ 따라서 기독교인에게 궁극적 완전(last perfection)이란 기독교인의 선행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후에야 받을 수 있으며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완전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⁵⁷⁾ 즉, 궁극적 완전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다.⁵⁸⁾

지금까지 살펴본 웨슬리의 완전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완전이란 겸손하며 인내하며 친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기질과 말, 행동을 다스린다. 그러나 완전이라는 말이 곧 다시 타락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완전이 궁극적으로는 죄가 없음을 내포하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완전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유동적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완전이 아니라,

54) 위의 책, Section 15, 17.

55) 위의 책, Section 15, 18.

56) 위의 책, Section 25, 52.

57) 위의 책, Section 25, 63.

58) 위의 책, Section 26, 65.

인간의 삶 속에서의 완전은 신앙의 단순성을 통해, 즉각적으로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임과 동시에, 그러한 순간적인 완전의 경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궁극적인 완전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을 통과하여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8.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독교인의 완전은 시대적으로 다양한 개념으로 나타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랑을 통하여 드러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기독교인의 완전은 인간의 완전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불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한다. 안디옥의 이그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완전을, 어거스틴도 종말론적 지평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였고, 월터 힐튼의 경우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의 하나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완전은 인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적 개념이며 오로지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둘째, 완전은 전인격적이다. 기독교인에게 완전이라 인간적인 무지나 실수, 불완전성이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완전이란 단순히 성화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완전과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전인적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겸손에 대하여, 바나바 서신은 신앙을 통한 내면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고, 폴리카프는 사랑의 의도에 대한 순수성을, 아퀴나스는 덕의 윤리를 통한 성품의 훈련을, 테레사는 선한양심의 회복을 통한 인간적 의지의 포기과 타자에 대한 용서를, 그리고 웨슬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종의 신앙으로부터 아들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전인적 완전의 개

념을 강조하였다.

셋째, 완전은 공동체적이다. 폴리카프는 계명을 통한 공의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은 사랑에 근거한 완전으로 이해하였으며, 아퀴나스도 자연법과 덕의 윤리를 통하여 이상적인 사회 공동체의 건설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웨슬리도 선행적 은총이 사회적 성화와 연결되어 세상 속에서의 말씀의 실현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정리하였듯이 기독교인의 완전은 개인의 이성에 근거한 합리주의나 공동체의 다수에 근거한 공리주의,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일반적인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의무론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완전의 시작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용서에 근거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영적 합일 또한 전적으로 신적 주권에 속하며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를 통한 이웃사람을 멈추지 아니하는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이와 같은 완전 개념은 이 시대 기독교의 영성이 회복하여야 할 요소라고 본다. 구원은 개인적인 지평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며, 성화의 과정을 통한 전인적, 교육적 훈련이 요구되고, 아울러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으로 그 순수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의 주권에 두고 헌신하는 겸손이야말로 이 시대 필요한 기독교 윤리적 요소인 것이다.

참고문헌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ca*, Christian Classi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pdf>
- Augustine, 『하나님의 도성』(조호연, 김종흡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 Bounds, Christopher Todd, "The Doctrine of Christian Perfection in the Apostolic Fathers,"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42, No.2 Fall, 2007
- Davis, Emmalon, "Summary of Walter Hilton's *Scale (or Ladder) of Perfection*,"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ccel/hilton/ladder.html>
- Hilton, Walter, *The Scale (or Ladder) of Perfection*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 McInerny, Ralph and O'Callaghan, John, "Saint Thomas Aquina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Summer 2014 Edition)
- Mendelson, Michael, "Saint Augustine,"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12 Edition)
- O'Bannon, Kathleen, "Summary of St. Teresa of Avila's *The Way of Perfection*,"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ccel/teresa/way.html>
- St. Teresa of Avila, *The Way of Perfection*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ccel/teresa>
- Wall, Steven, "Perfectionism in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Winter 2012 Edition)
- Wesley, John, *A Plain Account of Christian Perfection*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ccel>
- Zwart, Abby, "Summary of John Wesley's *A Plain Account for Christian Perfection*,"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URL=<http://www.ccel.org/ccel/wesley/perfection.html>